



뉴스 & 전광판

※ 매달 15일 기준

속보

제17기 GS칼텍스배 4강전

이세돌 · 박영훈, 5년 만의 결승 격돌

이세돌과 박영훈이 오랜만에 결승 무대에서 만나게 됐다. 4월 18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7기 GS 칼텍스배 4강전에서 박영훈 九단이 강동윤 九단을 267수 만에 흑불계로 꺾고 결승에 선착한 데 이어 랭킹 1·2위 간의 격돌로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 九단과 박정환 九단의 대결에서는 이세돌 九단이 236수 만에 백불계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두 사람이 가장 최근에 결승에서 격돌한 것은 2007년 제12기 GS칼텍스배로, 당시 박영훈 九단이 이세돌 九단을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다. 26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세돌 九단과 올해 22승 4패로 다승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영훈 九단이 5년 만에 똑같은 무대에서 결승5번기를 펼치게 됐다.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결승 격돌로 더욱 흥미를 모으고 있는 결승5번기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벌어진다. 우승상금은 7000만원.



이세돌 九단



박영훈 九단

바둑nTV초청 2012 돌풍대결

'구관이 명관' 2008년 입단자팀 퍼펙트 우승

돌풍대결의 초대 우승은 2008년도 입단자팀이 차지했다.

3월 26, 27일 이틀 동안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바둑nTV초청 2012 돌풍대결〉 결승에서 2008년도 입단자팀이 2009년도 입단자팀에 종합전적 3-1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본선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선착했던 08년팀은 1·2국에서 이호범 三단과 한웅규 四단이 각각 안국현 三단과 허진 그단에게 승리하며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3국 페어전에서는 09년팀 안국현 三단 · 김혜림 初단이 08년팀 이호범 三단 · 김미리 二단에게 승리하며 반격을 노렸지만 4국에서 황진형 初단이 김기원 三단에게 불계승하며 팀 승리를 결정지었다.

지난 1월 13일 개막한 2012 돌풍대결은 2008년~2011년 입단한 신예기사들이 각자 입단연도별로 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4명씩 한팀을 이뤄 풀리그를 벌인 후 본선 1, 2위팀이 결승에 올라 5판 3선승제로 우승팀을 가렸다. 우승상금은 1200만원.





제13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최연소 입신최강 박정환, 트로피 번쩍

제13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4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후원사인 동서식품의 이창환 사장과 토마스 두에너 부사장, 한국기원 조훈현 상임이사·양재호 사무총장, 바둑TV 김계홍 사장 등이 참석해 우승·준우승한 박정환 九단과 최철한 九단을 축하했다.

이창환 사장은 입신최강전 첫 출전 만에 대회 최연소 우승(19세 2개월)의 기록을 세운 박정환 九단에게 트로피와 우승상금 2500만원을, 준우승한 최철한 九단에게 트로피와 준우승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박정환 九단은 지난 3월 5일 제주 중문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막을 내린 결승3번기 2국에서 최철한 九단에게 18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0으로 대회 첫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



「외계인과 단군」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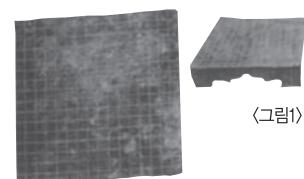
삼오출판사, 239쪽 정가 : 15000원

아이디 '외계인 단군'으로 타이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현수 씨가 「외계인과 단군」을 펴냈다. 단군경전(천부경 등), 주역, 고대 유물들의 신비한 수의 일치 및 외계인이 전한 바둑의 실체와 총 망라된 UFO, 모든 학문에서 드러나는 외계 역사의 흔적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제1부는 「외계인과 바둑」으로 시작된다.

“현재 가장 오래된 바둑판은 돌로 만들어진 17로며(서기 182년), 깎여진 꼭지점에서 바로 변이 시작된다(그림1). 289점에서 천원을 빼면, 1년이 288일이고, 한달이 24일이라 12개월이면 288일이다. 1년 또한 24절기로 지금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그들 지구다.”(본문 42p 인용)

미국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 잠시 일을 쉬는 동안 「외계인과 단군」을 집필해 출간한 후 100일 동안 직접 명동거리에서 홍보한 저자는 이 외에 「유리사슬」, 「狂神」, 「금빛왕자」, 「태양은 밤이 없다」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림1〉

박진열 · 안달훈, 입신 등극

한철균 · 김만수 · 김지석 · 박병규는 八단 승단, 총 26명 승단 행진

경남 바둑계의 원로기사 박진열(70) 八단이 ‘바둑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입신(入神 · 九단의 별칭)에 등극했다. 2012 한국바둑리그 예선 2회전을 통해 기준판수와 점수를 채워 입단 37년 만에 최고 단위인 九단으로 승단했다.

안달훈 八단도 제31기 KBS바둑왕전 예선 2회전에서 김덕규 八단을 꺾으며 입신에 올랐다 안달훈 九단의 입신 등극으로 국내 九단은 모두 60명으로 늘었다.

이외에 한철균 · 김만수 · 김지석 · 박병규 七단이 ‘앉아서도 삼라만상의 변화를 훤히 내다볼 수 있다’는 좌



박진열 九단



안달훈 九단

조(坐照 · 8단의 별칭)에 올랐고, 이민진 · 이재웅 · 윤혁 六단이 구체(具體 · 7단의 별칭), 최문용 · 김형환 · 한상훈 五단이 통유(通幽 · 6단의 별칭), 흥기표 · 강유택 · 김대희 · 박승화 · 김승재 四단이 용지(用智 · 5단의 별칭), 이원도 三단이 소교(小巧 · 4단의 별칭), 김진훈 · 안성준 · 이원영 二단이 투력(鬪力 · 3단의 별칭), 나현 · 최홍윤 · 장건형 · 강훈 · 박준석 初단은 약우(若愚 · 2단의 별칭)로 각각 승단했다.

■ 승단자 명단(총26명)

九단 : 박진열, 안달훈 八단 : 한철균, 김만수, 김지석, 박병규

七단 : 이재웅, 윤혁, 이민진 六단 : 최문용, 김형환, 한상훈

五단 : 흥기표, 강유택, 김대희, 박승화, 김승재

四단 : 이원도 三단 : 김진훈, 안성준, 이원영 二단 : 나현, 최홍윤, 장건현, 강훈, 박준석

이청 장편소설 〈동천홍〉, 20부작 드라마로 제작된다

이청(李青) 씨의 장편소설 〈동천홍〉이 20부작 드라마로 제작된다. 이청 씨는 (주)노마드 비즈(대표 김유민)와 〈동천홍〉의 원작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우연히 후배작가의 소개로 〈동천홍〉을 접했다”는 (주)노마드 비즈 김유민 대표는 “20부작 드라마로 제작 예정인 〈동천홍〉의 대본 작업과 캐스팅 작업을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 봄쯤 방영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대표는 99년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영화 〈노랑머리〉의 감독이기도 하다.

충남 청양 태생인 이청 씨는 86년 스포츠서울 창간 소설공모에서 〈통신 살인〉으로 당선돼 등단했다. 주요작품으로는 장편 〈삼대 패밀리〉 〈명동시대〉 〈물처럼 바람처럼〉 〈협객〉 〈선〉 〈안개선원〉 〈백색지대〉 등을 출간했다.

인터넷바둑을 계기로 뒤늦게 바둑글을 쓰기 시작한 이청 씨는 한학에 조예가 깊고 도서관에서 고서를 보는 일이 취미여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둑 사료와 기록을 새롭게 발굴해 왔다. 바둑 관련 저서로는 〈동천홍〉(2005년)과 〈한국바둑사〉(2007년), 소설 〈벽상검〉, 〈한국바둑전사〉(이상 2009년), 〈사화기림〉(2011년) 등이 있다.





제10회 승단·급 심사, 550명의 참가자들로 북적

(사)대한바둑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초등바둑연맹(회장 윤건영)이 주관한 제10회 승단·급 심사가 3월 31일 한국기원 2, 5층 대회장에서 치러졌다. 이번 심사는 서울지역 바둑교실과 방과후교실 학생 550명이 참가해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에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됐다.

심사는 4인 1조의 실전대국과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유단자 심사에는 강만우 九단이 다면기 평가를 하였다. 바둑꿈나무들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열띤 경쟁과 진지한 분위기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연 3회 시행하는 승단·급 심사는 (재)한국기원과 (사)대한바둑협회가 공동으로 공인 단증과 급증을 발행하는 유일한 심사이며 다음 승단·급심사는 오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초등바둑연맹(회원문의:010-2735-5778, 회장 윤건영)



서봉수 九단 바둑특강 개강 안내

“명인 서봉수 九단이 1:1 맞춤형 레슨으로 당신의 기력을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일시 : 2012년 5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강의시간 :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기원 지하 바둑TV라운지

수강료 : 월 20만원

문의전화 : 02-2298-3844(월~토:1~6시)